

싱가포르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GMP) 내용 분석

김 은 주*

교육과정은 한 나라의 교육이 표방하고 있는 기본 이념과 가치가 반영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각 국가에서는 다변화하는 사회와 세계를 살아갈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능력을 ‘역량’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교육과정에 담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는 음악과 교육과정을 2008 일반음악 프로그램 교수요목에서 2015 개정 일반음악 프로그램 교수요목으로 개정하여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반영하였다. 개정된 싱가포르의 음악과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급에 따른 학년군 중심으로 운영되며, 학년군 말에 기대되는 학생의 성취 수준을 몇 개의 ‘학습목표’로 제시하고 국가수준의 범교과적 성격에 ‘21세기 역량’을 제시한 점 등이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의 최근 동향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개정된 해외의 교육과정 사례 중 싱가포르의 2015 개정 일반음악 프로그램 교수요목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핵심역량을 반영하는 새로운 우리나라의 음악과 교육과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주제어: 싱가포르 음악과 교육과정, 일반음악 프로그램 교수요목, 21세기 역량

차 례

I. 서론

II. 2015 개정 일반음악 프로그램 교수요목

1. 목적
2. 음악과 목표
3. 교수방법 및 평가
4. 음악교수학습에서 ICT의 활용
5. 음악교실에서 21세기 역량
6. 내용

III. 논의 및 제언

* 광주 서일초등학교 교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I. 서론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도시 국가로써,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1965년에 분리 독립한 비교적 신생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안에 동남아시아의 신흥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였다. 최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 76개국의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보이며, ‘교육 강국’ 핀란드를 큰 격차로 따돌리고 높은 교육 수준으로 세계의 눈이 싱가포르의 교육을 주목하게 하였다(오윤희, 2015).

싱가포르 교육은 1997년 미래를 위한 교육의 공식적인 전략으로 ‘생각하는 학교, 학습하는 국가(Thinking Schools, Learning Nation)’를 채택하고 이를 싱가포르 교육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임유나, 2014). 싱가포르 교육 시스템의 목표는 모든 어린이에게 가장 알맞은 교육을 통하여 각 학생의 재능을 발견하고 잠재력을 실현하며 배움에 대한 열정을 전 생애에 걸쳐 지속시키도록 하는 것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특히 싱가포르는 교육 안에서 국가가 지향하는 바를 국민이 함께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교육(National Education)’이라는 개념을 운영하고 있다(Lee Hsien Loong, 1997). 이처럼 싱가포르는 교육을 통한 바람직한 시민의 양성을 국가 수준에서 강조하고 이를 각 교과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국가 교육’이라는 싱가포르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강조점과 특성은 각 교과 교육과정 속에 나타나 있다.

싱가포르의 음악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일반음악 프로그램 교수요목(Syllabus General Music Programme)’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최근에는 ‘2008 일반음악 프로그램 교수요목(2008 Syllabus General Music Programme)’에서 ‘2015 개정 일반음악 프로그램 교수요목(2015 Syllabus General Music Programme)’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학습 단계’의 변화, ‘ICT 활용’, ‘21세기 역량’의 추가 등 음악과 교육과정을 이루는 큰 틀과 내용상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싱가포르와 같이 학생들이 갖추어야 하는 ‘역량(Competency)’ 요소를 교육과정 속에서 해석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변화는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서구 교육 선진국에서는 자리를 잡고 있으며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별 교육과정을 통해 그 동안 지방분권적으로 이루어졌던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에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예술교과에서도 ‘국가핵심예술기준’을 개정, 발표하여 2014년 새

로운 핵심음악기준을 발표하기도 하였다(최미영, 2015).

국가 수준의 교육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을 ‘역량’이라는 개념으로 교육과정 속에 담고자 하는 세계 교육과정의 변화의 흐름은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개정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과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 중 하나는 ‘핵심역량을 반영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로, 핵심역량의 함양이 국가교육과정 개정의 중요 방향임을 교육과정 총론에 명시하고 교과 공통의 핵심역량과 교과별 핵심역량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발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교육과정은 학교교육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계도로서, 교육과정의 개정은 단지 문서상의 변화만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교과서나 학사 일정, 교원 수급과 양성 체계, 입시제도 등의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변화를 동반한다(민경훈, 2009). 따라서 교육과정 개정은 신중해야 하며, 그만큼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 시기마다 해외의 교육 선진국에서 이루어진 교육과정 개정 동향을 살펴보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각론 수준의 음악과 교육과정에 대한 기초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석문주, 최미영, 2011).

그 동안 싱가포르의 음악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싱가포르 초등학교 6학년 음악교과서의 다문화적 경향을 분석한 연구(장근주, 2008), 다문화 교육의 관점에서 싱가포르 초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이경희, 2009), ‘국가교육노래(National Education Songs)’를 통하여 국가교육이 음악 교육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양종모, 2014) 등이 있었다.

싱가포르는 최근 음악과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2015 일반음악 프로그램 교수요목(2015 Syllabus General Music Programme)’을 개정, 발표하였다. 새로 개정된 2015 일반음악 프로그램 교수요목은 ‘21세기 역량’, ‘ICT 활용’ 등 변화하는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교육과정의 내용과는 차이를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핵심 역량 반영’이라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을 가지고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오지향, 정재은, 석문주(2014)의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1세기에 요구되는 학습자 역량을 우리나라 음악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현실에서 싱가포르 교육과정의 음악 교수·학습에서 ICT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주대창(2015)은 교육과정 개정은 모든 사항을 담아내는 교육과정 추구보다는 상대적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이루어지므로, 음악교과의

교육과정 개정에서 중요한 것은 기존 교육과정에 대한 절대적 우위의 대안보다는 상대적 우위의 대안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외국의 교육과정의 특징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싱가포르 교육과정의 변화하는 시대의 최신 흐름을 반영하면서 ‘역량’ 요소를 바탕으로 한 해외 교육과정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2015 일반음악 프로그램 교수요목 문서와 싱가포르 교육부의 공식적인 교육 관련 문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의 틀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문서 체제 항목에 해당하는 ‘목적,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를 중심으로 두되, 싱가포르 2015 일반음악 프로그램 교수요목의 고유한 문서 체제 및 교육과정 구성 항목 명칭을 존중하여 분석의 순서를 ‘목적, 음악과 목표, 교수 방법 및 평가’, 음악교수학습에서 ICT의 활용, 음악교실에서 21세기 역량, 내용’의 순서로 분석하였다.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국가적·사회적인 요구가 음악과 교육과정 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과 유사하거나 다른 점을 종합하여 살펴보았다.

Ⅱ. 2015 개정 일반음악 프로그램 교수요목

2015 개정 일반음악 프로그램 교수요목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초등·중학교를 위한 음악 교육과정으로써, 2015년 현재는 초등학교 1~2학년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2015 Syllabus General Music Programme, 2015).

1. 목적

2015 개정 일반음악 프로그램(GMP) 교수요목은 모든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모든 아이에게 음악에 대한 연결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기본 음악 교육을 제공하는 핵심 기준으로 작용한다. 더불어 이는 싱가포르의 문화유산의 미래 발전과 보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여기서는 음악이 많은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 학생들에게 세계적인 인식을 제고하는

방법을 제공한다는 점, 음악 연주와 창작과 관련된 과정들이 듣기 능력, 미세 운동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과 사회적 능력과 같은 능력을 개발한다는 점,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게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음악의 속성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2015 Syllabus General Music Programme, 2015).

싱가포르의 2015 개정 일반음악 프로그램 교수요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음악교과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지역 문화 및 세계 문화에서 음악을 인식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개발한다.
- 나. 음악을 통해 창조적 표현과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한다.
- 다. 음악에 대하여 넓은 안목과 평생 참여하는 태도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우선 ‘가’에서는 음악과 문화와의 연관성에 기반하여, 지역과 세계 문화 속에서 음악을 인식하고 감상하는 것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중국인, 말레이인, 인도인, 파키스탄인, 기타 소수 민족 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라는 점에서 생태적 종족 명칭보다 ‘싱가포르인(Singaporean)’이라는 통합된 의미의 국민 정체성을 쓸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장근주, 2008),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적에서도 음악을 통한 문화의 이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흐름을 읽을 수 있다.

다음으로, ‘나’에서는 음악을 통한 표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위쪽에서 밝힌 음악의 속성에 초점을 둔 것으로써 자신을 창조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의 상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에서는 음악에 대한 안목과 평생 참여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음악 학습이 교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뿐 아니라 학습이 끝난 뒤에도 계속 이어지는 토대로써 작용하기를 바라는 것으로써,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의 ‘생활화’ 영역과도 유사한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싱가포르 교수요목이 적용되는 단계는 [그림 1]과 같다(2015 Syllabus General Music Programme, 2015, p.3).

단계 (Stage)	수준(Level)			
4				중학교 1~2학년
3			초등 5~6학년	
2		초등 3~4학년		
1	초등 1~2학년			

[그림 1] 일반음악 프로그램 교수요목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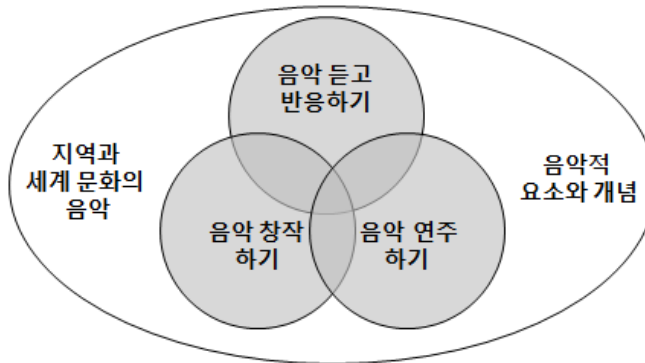
[그림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음악 프로그램 교수요목 단계는 총 네 개의 단계로 되어 있으며, 각 단계는 2개의 수준을 포함한다. 수준(Level)은 보통 정도의 능력의 학생들이 도달할 수 있는 정도의 단계를 나타낸 것이며, 단계(Stage)는 학습 내용의 위계에 따라 결정된다. 학생의 수준은 음악적 능력 또는 역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같은 학년에 있는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수준에 따라 학습하는 단계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3~4학년이라 하더라도 높은 능력을 가진 학생은 3단계의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 반대로 낮은 능력을 가진 학생은 1단계의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 각 단계의 2년 간 반드시 습득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식과 능력은 학습 결과에 자세히 나와 있다. 각 단계는 이전 단계(들)의 역량을 기반으로 구축한다.

이와 같은 싱가포르 교수요목의 적용 단계는 4단계를 중학교 1~2학년까지 2년 과정으로 두는 점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초등학교~중학교의 학년군별 교육과정 운영 방식과 유사한 면이 있는 한편, 학생의 능력에 따라 학습 내용의 단계를 다르게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적용 방식과 차이를 보인다.

2. 음악과 목표

2015 개정 일반음악 프로그램 교수요목에서는 음악과의 목표를 기대되는 학습 결과를 중심으로 ‘다섯 개의 중요 학습 목표(five overarching Learning Objectives, 줄여서 LOs)’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2015 Syllabus General Music Programme, 2015, p.4). 모든 학습 결과는 음악에서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음악 창작과 연주와 같은 활동적인 음악 경험을 통해 학습되는 요소와 개념들,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과 음악적 요소와 개념의 이해를 요하는 음악적 능력

(감상, 창작, 연주)의 표현에서 다루어지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학습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2]는 일반음악 프로그램에서 교수학습을 위해 제시하는 구성 체제로써, 5개의 학습 목표가 성취될 수 있는 접근을 나타낸 것이다(2015 Syllabus General Music Programme, 2015, p.4).



[그림 2] GMP에서의 교수학습을 위한 구성 체제

[그림 2]의 구성체제는 일반음악 프로그램 교수요목의 기본 구조로써, 이는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5개의 학습목표 속에 그대로 녹아들어가게 된다. 또한 이는 앞서 밝힌 음악과의 ‘목적’의 세 개 항목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음악 교과목의 목적과 기본 구조, 학습목표 간의 연계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구성체제를 이루는 5개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5개의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와 그에 따른 각 세부내용은 <표 1>과 같다(2015 Syllabus General Music Programme, 2015, pp.4-7).

각 학습목표를 잘 살펴보면 ‘악기 연주하기’, ‘음악 만들기’, ‘음악 듣고 반응하기’, ‘지역 및 세계의 음악 감상하기’, ‘음악 요소 및 개념 이해하기’로써, 이들은 학습목표의 의미도 지니지만,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의 ‘영역’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들 학습목표는 이어지는 세부 내용을 통하여 상세히 서술되고 설명되고 있다.

<표 1> 학습목표(LOs)와 각 목표별 세부내용

학습목표		세부 내용
LO1	개인 및 그룹에서 악기 및 목소리로 음악 연주하기	음악 연주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을 표현하는 음악적 능력을 갖출 것이다. 그들은 음악 경험을 확장시키는 음악 악곡의 배열을 접할 것이다.
LO2	개인 및 그룹에서 악기 및 목소리로 음악 만들기	음악 만드는 과정은 음악의 맥락 안에서 학생들의 타고난 창의력을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다. 즉흥연주와 음악 작곡과 같은 음악적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그들이 듣기와 연주를 통해 습득한 음악적 능력과 개념들을 그들이 학습한 모든 것에 대한 연결성과 관련성을 그리는 식으로 적용할 것이다.
LO3	음악 듣고 반응하기	듣기는 음악 교육의 핵심 과정이다. 듣기를 통해 학생들은 새로운 소리 세계 그리고 음악 장르와 전통의 서로 다른 소리 구성요소를 경험한다. 연주와 창작을 하는 동안 주의 깊게 그리고 신중하게 듣는 것을 배우는 것은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작품을 숙고하고 동료와 다른 음악가들의 작품에 반응할 수 있게 한다. 듣기는 음악적 의미를 통해 가르쳐지고 교육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특정한 음악적 선택으로 노래하고, 연주하거나 움직일 수 있다.
LO4	지역 및 세계 문화의 음악을 감상하기	음악은 거의 모든 문화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릴 때부터 지역 및 세계 문화 모두의 음악에 대한 다양한 노출을 통해, 학생들은 다른 문화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다른 형태의 음악 가능성에 대한 열린 자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사회 속에서 음악가의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 속에서의 음악의 역할에 대해 이해할 것이다. 학생들의 음악적 이해는 음악, 음악가, 문화 속에서 음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하여 아는 것을 통해 심화되고 맥락화된다.
LO5	음악 요소 및 개념 이해하기	음악 요소 및 개념 학습은 음악 언어의 학습과 같은 뜻이다. 음악의 구성하는 구성요소와 개념의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그들이 들은 음악을 더욱 잘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은 주제를 더욱 더 탐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음악 요소 및 개념은 음악적 경험을 통해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다.

<표 1>에서 서술한 학습목표는 세부내용 외에도 각 학습목표 뒷부분에 3단계 말, 즉 초등학교 6학년의 말과 4단계의 말, 즉 중학교 2학년의 말에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학생들의 수준을 서술하고 있다. 2개의 학년군씩 묶어서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다시 학교급을 중심으로 각 학교급을 마칠 때마다 어떠한 성취 수준을 보여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각 학습목표별로 성취수준은 <표 2>와 같다 (2015 Syllabus General Music Programme, 2015, pp.4-7).

<표 2> 학습목표별 성취수준

학습목표	성취수준	
LO1: 개인 및 그룹에서 악기 및 목소리로 음악 연주하기	3단계 말 (초 6)	학생들은 교실 악기를 연주할 것이며 주요 선율악기(예. 리코더, 기타)를 좋은 음색과 표현으로 연주할 수 있을 것이다.
	4단계 말 (중 2)	학생들은 기타, 키보드, 드럼과 같이 그들이 선택한 악기의 배열에 대한 연주 경험을 가지게 될 것이다.
LO2: 개인 및 그룹에서 악기 및 목소리로 음악 만들기	3단계 말 (초 6)	학생들은 주어진 구조 내에서 간단한 선율을 작곡할 수 있고 리듬과 선율 즉흥 연주에 숙련될 수 있을 것이다.
	4단계 말 (중 2)	학생들은 그룹과 개인으로써 음악적 자료를 자유롭게 탐색하는 데 더욱 숙달될 것이다. 학생들은 또한 음악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의사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LO3: 음악 듣고 반응하기	3단계 말 (초 6)	학생들은 적절한 음악 용어를 사용하여 음악의 특성을 설명함으로써 그들이 들었던 음악에 대하여 평가하고 언급할 수 있다.
	4단계 말 (중 2)	학생들은 음악에 대해 깊이 토론하고 개인적인 반응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LO4: 지역 및 세계 문화의 음악을 감상하기	3단계 말 (초 6)	학생들은 싱가포르 문화, 지역 문화뿐만 아니라 서양 고전 전통 악곡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4단계 말 (중 2)	학생들은 다양한 장르와 문화의 음악으로 더 상세하게 자신의 반응을 토론할 수 있을 것이다.
LO5: 음악 요소 및 개념 이해하기	3단계 말 (초 6)	학생들은 다양한 장르와 문화의 음악을 듣고, 연주하고 그리고 창작할 때 음악적 요소 및 개념을 묘사하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4단계 말 (중 2)	학생들은 음악을 듣고, 연주하고 창작하는 것을 통하여 음악 요소와 개념의 이해를 증명하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학습목표는 학교급이 마무리되는 단계인 3단계와 4단계 말에 기대되는 성취수준으로 더욱 구체화하여 나타나고 있다. 각 성취수준을 살펴보면, 해당 학습목표의 구현을 위하여 다른 학습목표에 나타난 활동들과 자연스러운 통합과 연계를 이루어내고 있다. 예를 들면, ‘LO5’의 4단계 말에 해당하는 성취수준을 살펴보면, ‘음악 요소 및 개념 이해하기’라는 학습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음악을 듣고, 연주하고 창작하는 것을 통하여’ 음악 요소와 개념의 이해를 ‘증명’하고 ‘표현’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이는 감상, 연주, 창작과 개념 이해 간의 관계를 인정하며, 관찰 가능한 행동인 ‘증명’과 ‘표현’이라는 용어를 써서 학생들의 성취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학습목표(LO1)에 해당하는 ‘음악 연주하기’ 항목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음악 수업을 위하여 활용 가능한 악기를 추천 악기 목록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표 3>과 같다(2015 Syllabus General Music Programme, 2015, p.5).

<표 3> 학교를 위한 추천 악기

악기 유형	초등학교 추천 목록	중학교 추천 목록
교실 악기	탬버린, 트라이앵글, 웨이커, 우드 아고고, 투톤 블록, 클라베스, 슬레이 벨, 핑거 심벌즈, 오르프 실로폰과 메탈로폰, 핸드벨, 귀로, 핸드드럼, 봉고, 쿵가 등	
(학교 선택) 주요 선율 악기	2-3단계에서, 하나의 주요 악기가 학생들에게 권장됨 - 리코더 - 기타 - 실로폰 - 키보드 - 우쿨렐레	- 키보드 - 기타 - 우쿨렐레 - 초등 수준에서 학습하였거나 음악 CCA¹⁾의 참여를 통한 선율악기들

<표 3>에 제시된 악기 목록을 보면, 학교급별로 추천되는 교실 악기와 학생 개인에게 추천될 수 있는 주요 선율 악기의 목록을 학교 선택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우선 교실 악기 목록은 공통으로 제시함으로써 초등학교와

1) CCA란, ‘Co-Curricular Activity’의 약자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체 교육과정에서 각 과목의 학습을 통하여 삶에 필요한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력, 회복력, 자신감, 끈기 등)을 익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중 하나이다. CCA는 교육과정의 21세기 역량과 핵심 가치를 적용하기 위해 싱가포르 공립학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교과 외의 활동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관심과 재능을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CCA는 스포츠와 예술 분야에서 두드러진다(Bring Out The best In Every Child: education in singapore, p.4).

중학교에서 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악기가 오르프 타악기에 해당한다. 한편, 주요 선율악기는 학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추천 목록이 달리 제시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개인의 음악적 기량을 바탕으로 학습할 수 있는 악기를 위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추천 악기의 목록을 교육과정에 제시함으로써, 학교마다 교실 음악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악기를 구비할 때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재 지역 및 학교의 실정에 따라 구비 악기가 천차만별로 달라 음악수업의 질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도 참고가 될 수 있는 점이라고 판단된다.

3. 교수방법 및 평가

1) 음악 교수를 위하여 권장되는 교수법

2015 개정 일반음악 프로그램 교수요목에서는 적절한 교수법과 교육 방식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교사들에게는 다양한 음악 경험을 통한 학생 참여 수업을 계획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2015 Syllabus General Music Programme, 2015, p.7).

우선 음악 학습에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연주, 창작 그리고 음악 듣기의 과정에서 그들을 의사결정에 관련시키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며, 효과적인 질문과 같은 기술을 통해,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그들이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더 충분한 발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들에게는 협동 학습의 기회를 짜는 것, 그리고 또한 수업 설계 및 음악 자료를 선택할 때 학생들의 음악적 배경에 대해 고려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음악적인 음악 수업은 학생의 교육 경험이 음악 자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며 교사들은 학생들을 청각적으로 그리고 운동 감각적으로 관련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코다이, 달크로즈와 같은 특정 교수법의 독특한 접근법과 원리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실에서 적용될 수 있으며 음악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활용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싱가포르 음악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수법은 ‘음악학습에 학생의 참여’, ‘질문, 격려 등 교사의 태도’, ‘수업 설계 및 음악 자료 선택 시의 유의점’, ‘음악적인 음악 수업을 위하여 적용 가능한 교수법의 원리’ 등을 통하여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방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현

을 위한 교수 아이디어나 수업 시의 활용점 등은 교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평가

2015 일반음악 프로그램 교수요목에서 평가는 교수학습 과정에 필수적인 것으로 명시된다. 평가의 시기는 자신의 강점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그들에게 학습 격차를 메우는 것을 돕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평가를 통해 도출된 정보는 또한 교사들이 그들의 교수 접근과 전략을 검토하는 데 활용된다고 진술하고 있다(2015 Syllabus General Music Programme, 2015, p.8).

평가 방법은 학생들의 학습을 용이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행될 수 있는데, 듣기 활동(움직임 반응 포함), 음악 연주, 즉흥 연주, 작곡 과제, 서면 숙제 또는 저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하나의 특정 평가 작업이 모든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교사들은 다섯 개의 학습 목표(LOs)가 올해의 과정에서 모두 해결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같이, 평가 항에서는 평가의 시기와 평가 정보의 활용 방법, 다양한 평가 방법, 평가 상의 유의점 등을 진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음악교수학습에서 ICT의 활용

2015 개정 일반음악 프로그램 교수요목에서는 음악 교수·학습에서의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활용을 강조하며 ICT의 유형을 <표 4>와 같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2015 Syllabus General Music Programme, 2015, pp.8-9).

<표 4> 음악 교수·학습에서 활용 가능한 ICT 유형

유형	세부 내용
비 음악 교수·학습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 통신	ICT 도구는 학급에서 학생 참여 수준을 향상시키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장려하며 정보 및 논의의 수집을 촉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 이-러닝 음악 패키지 • 인터넷 및 블로그, 팟캐스트,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의 소셜 미디어의 다양한 형태

유형	세부 내용
특정 음악성 기술 개발 도구로서 정보 통신 기술	정보 통신 기술은 시청각 문해 능력과 같은 음악의 개념과 기술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음악 이론과 청각 기술에 초점을 둔 유용한 소프트웨어와 전용 웹사이트가 있는데, 학생들은 이러한 학습 자원을 독립적으로 활용하도록 교육될 수 있다.
음악 창작 기술을 개발하는 도구로서의 정보 통신	ICT 도구는 또한 창작 과정을 촉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연주, 작곡, 편곡, 녹음과 즉흥연주와 같은 음악 창작 과제 수행에 도움을 주는 전용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포함) 적절한 교육 방법과 발판을 통하여, 학생들은 음악을 만드는 더욱 본격적인 과정을 경험하는 동안에 음악 창작에서의 기본적인 기술을 발전시킬 것이다. 이는 음악 작품을 작곡하고, 편곡하고, 연주하거나 녹음하는 업계의 음악가들과 유사하다.

<표 4>의 내용과 같이, 2015 개정 일반음악 프로그램 교수요목에서는 각 음악 교수·학습 상황별로 ICT 도구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학생들의 음악 학습의 보완과 지원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교실에서 ICT 도구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악기를 가지고 하는 음악 만들기(연주와 창작)에서 충분한 경험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음악 교수·학습에서의 ICT 활용 가능성을 유형별로 상세히 제시한 것으로 보아, 싱가포르 교육에 반영된 정보통신 사회에 적합한 능력 함양과 관련한 국가·사회적 요구가 음악 교과 속에서도 교사와 학생들에게 좀 더 유용한 접근과 방식으로 녹아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 음악교실에서 21세기 역량

2015 개정 일반음악 프로그램 교수요목에서 이전 교육과정과 구별되는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의 21세기 역량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 역량은 사회적 능력과 정서적 능력, 빠른 변화와 고도화된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음악교과뿐 아니라 전 교과에 공통으로 제시되는 항목이다. 이에 해당하는 싱가포르 교육의 21세기 역량의 프레임 워크는 [그림 3]과 같다.

가장 가운데에 있는 것은 ‘핵심 가치(Core Values)’로써, 프레임 워크의 핵심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가운데 고리는 ‘사회 및 정서적 역량’을 나타내는데, 이는 의사결정과 상황 처리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감정과 사회적 관계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나타낸다. 바깥 고리는 글로벌 시대를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신홍 21세기 역량’을 나타낸다(2015 Syllabus General Music Programme, 2015, p.10).



[그림 3] 21세기 역량 프레임워크

[그림 3]에서 제시된 21세기 역량의 프레임워크는 각 교과에 공통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범교과적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21세기 역량을 개발시키기 위하여 음악교과에서는 ‘역량을 개발시키기 위한 GMP(General Music Programme)의 역할’이라는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다(2015 Syllabus General Music Programme, 2015, pp.10-11). <표 5>는 21세기 역량의 개발을 위한 GMP의 역할을 21세기 역량의 프레임워크를 이루는 항목별로 나타낸 것이다.

<표 5> 21세기 역량 개발을 위한 GMP의 역할

프레임워크	영역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GMP의 역할
가치 이들은 사람의 성격을 정의하는 것으로 구조의 핵심을 형성한다. 지식과 기술은 가치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 책임 • 존중 • 탄력 • 성실 • 배려 • 화합	음악 학습과 음악 만들기의 본질은 가치의 배양을 위한 자연적인 기반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상상력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그들의 파트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학습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데 융통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존중, 배려, 화합, 성실과 같은 가치들은 팀에서 공동의 작업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사회적·정서적 역량 이 기술은 학생들이 감정을 인식하고 관리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개발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어려운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하다.	• 자기인식 • 자기관리 • 사회인식 • 관계관리 • 책임 있는 의사결정	음악은 잠재력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을 포함하는 공동의 예술을 형성하는데, 이는 음악 연주 또는 창작 활동 안에서 이루어진다. 음악 창작과 상상력 연주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그룹 안에서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교사의 지도와 지원으로, 학생들은 다른 다이내믹을 관리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또래집단 안에서 그리고 그 이상의 그룹에서 그 과제를 함께 하면서 이루어질 것이다.
21세기 신흥 역량 프레임워크의 외부 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글로벌화된 세계에 필요한 21세기 신흥 역량을 나타낸다.	• 시민으로서의 능력, 글로벌 인식과 상호문화기술 • 비판적·창의적 사고능력	대부분의 사회에서 각 문화는 주류를 형성하는 고유의 음악을 가진다. 지역과 세계 음악으로의 노출을 통해, 학생들은 그들이 가진 것 이상의 다른 문화로 접근하여, 싱가포르 내에서 그들의 뿌리를 유지하고 있는 문화와의 연결점을 얻는다. 음악 듣기와 반응하기는 학생들이 음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배웠던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기를 요구한다. 음악 만들기와 창작하기 과정은 비판적·창의적 사고능력 육성을 촉진한다. 음악 작품을 창작하는 동안, 학생들은 그들의 최선의 능력을 발휘하여 음악 요소를 처리하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효과를 음악을 통해 청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는 악기, 피치, 그리고 멜로디에 맞는 적합한 코드를 포함한다.

프레임워크	영역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GMP의 역할
	커뮤니케이션, 협업 및 정보 기술	음악은 자기표현 모드이다. 다양한 음악에 대한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작곡가와 음악가가 시대와 문화를 통해 어떻게 그들을 표현했는지를 이해한다. 그리고 그들은 청중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통해 그들의 감정과 아이디어를 음악 연주와 창작 과정을 통하여 이러한 학습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음악가들이 그들의 작품을 공유하는 많은 장이 있다. 학생들은 온라인과 같이 각자의 음악 작품 탑재하고 비판하는 공유 장을 도구를 활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개발시킬 수 있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5 개정 일반음악 프로그램 교수요목에서는 범교과 차원에서 제시된 21세기 역량을 프레임워크를 이루는 영역별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일반음악 프로그램의 역할로 풀어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 역량별 영역(domain)은 음악 교수·학습에서의 적용점과 기대 효과까지 포함하여 음악 교과의 관점에서 역량을 해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싱가포르 음악과 교육과정의 21세기 역량 반영 방식은 범교과적 차원의 역량을 음악과 고유의 역량으로 재해석하고 교과 교육과정을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2015 개정의 방향과도 유사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습득하기를 기대하는 역량 요소의 음악 교육적 적용 방안 마련에도 참고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6. 내용

2015 개정 일반음악 프로그램 교수요목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생들이 배워야 할 음악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총 5단계로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앞서 제시된 5개의 학습목표(LOs)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각 학습목표별로 각 단계의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하는 음악 교과의 활동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형태이다.

전체 5단계 중 2단계(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음악과 내용 중 LO1에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 6>과 같다(2015 Syllabus General Music Programme, 2015, p.14).

<표 6> 2단계(초등 3~4) 학습목표 1의 내용 예시

학습목표	내용
LO1: 개인 및 그룹에서 악기 및 목소리로 음악 연주하기	학생들은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노래 (i) 정확하고, 명확하며 적합한 기술로, 2/4, 3/4, 4/4와 6/8의 다양한 악곡(예. 민요와 뮤지컬 노래) 노래하기 (ii) 적절한 템포, 쉼여림, 아티클레이션과 프레이즈를 가지고 표현력 있게 노래하기 (iii) 앙상블과, 리듬과 멜로디가 복잡하게 증가하는 선율 오스티나티 그리고 2-3성 카논으로 노래하기 악기 연주 (iv) 개별적으로 또는 앙상블로 연주하기, 2/4, 3/4, 4/4, 6/8 박자에서 리듬, 멜로디 그리고 화성적 패턴으로 연주하기. 레퍼토리는 반드시 다음 조성을 기초로 해야 함 • C 5음 음계 모드 • C, F, G장조와 a단조. (v) 기본적으로 적절한 악기의 숙달을 위해 주선율 악기 연주하기(예: 리코더, 키보드, 기타)

<표 6>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내용에서는 각 학습목표 안에서 세부적으로 학생들이 각 단계에서 성취해야 할 내용을 활동과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각 단계의 내용이 구체적이며 위계성을 분명하게 띄고 있어 가르치는 교사가 어떤 악곡과 개념을 중심으로 바탕으로 가르쳐야 하는지, 학생이 학습 후에 어느 정도의 성취 수준을 보여야 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다.

Ⅲ. 논의 및 제언

교육과정은 한 나라의 교육이 표방하고 있는 기본 이념과 가치가 담겨있는 문서이다. 특히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국가적·사회적 요구와 바람이 교육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최근 각 국가에서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국가가 원하는 인재상을 설정하고, 학생들이 갖추기를 기대하는 다양한 능력을 교육과정을 통하여 구현하려

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음악과 교육과정의 개정이 이루어진 싱가포르의 2015 개정 일반음악 프로그램 교수요목의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각 항목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정리하였다.

싱가포르 2015 일반음악 교수요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적에서는 ‘음악을 통한 문화의 이해’, ‘음악을 통한 표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의 개발’, ‘음악에 대한 안목과 평생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음악의 교과 지식이나 활동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 세계 인식과 상호 문화 기술, 의사소통, 협동 및 정보처리기술,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력 등의 21세기 역량을 음악 교과를 통해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둘째, 음악과 목표와 내용에서는 기대되는 학습결과를 중심으로 5개의 학습목표(LOs)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로 내용으로 연결하여 학생들이 성취해야 하는 목표의 방식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과정을 통해 교사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과 학생들이 학습해야 하는 것을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으며 교육과정의 일관성, 독자를 위한 해석의 용이성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교수 방법 및 평가는 전체적인 방향과 흐름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는 교육과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교사의 교육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업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의 구체성 정도가 쟁점이 되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하나의 예시를 보여줄 수 있다.

넷째, ‘음악교수학습에서 ICT 활용’은 싱가포르 음악과 교육과정의 문서 체제에서 독특한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국가와 사회적 ICT 환경과 학생들의 수준, 그리고 수업 시의 활용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흐름을 교육과정에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와 사회의 요구와 흐름을 교육과정에 담아내고자 하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다섯째, ‘음악교실에서 21세기 역량’은 총론의 역량을 음악과에 해석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에 부합한다 싱가포르 교육과정의 경우 총론 차원에서 제시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21세기 역량의 개발을 위한 음악과 교육과정의 역할을 항목별로 상세히 서술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는 범교과

적 역량을 교과외의 시선에서 재해석하고 적용하려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개정 과정에 있는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맥락과도 유사한 경향이 있다. 음악 교과 고유의 역량을 따로 제시하지 않고 교과 공통의 범교과 역량을 교과외의 성격을 살려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음악과 교육과정의 역량 반영 방식을 분석하고 비교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점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싱가포르의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근 개정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것을 좀 더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보완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음악과 교육과정의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의 연구와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민경훈 (2009).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음악교육의 위기. **음악교육연구**, 37, 1-33.
- 석문주, 최미영 (2011). 외국의 음악과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시사. **교육과정연구**, 29(2), 145-172.
- 양종모 (2014). 싱가포르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국가교육노래 (NE songs)의 의미와 학습 내용 연구. **음악교육공학**, 21, 27-47.
- 오윤희 (2015.05.13). 15세 학생 수학·과학 성취도 아시아 국가 1~5위 휩쓸어. 조선닷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5/13/2015051303780.html
- 오지향, 정재은, 석문주(2014). 21세기 음악교육에서의 테크놀로지 역량. **음악교육연구**, 43(4), 187-209.
- 이경희 (2009). 다문화 교육을 위한 초등음악교과서의 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 싱가포르 초등음악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유나 (2014). 국가교육과정기준 총론의 형식과 내용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장근주 (2008). 싱가포르 초등 음악교과서의 다문화적 경향 분석 연구 -초등학교 6학년을 중심으로. **음악교육공학**, 7, 103-116.
- 주대창 (2015). 학습 주제 중심의 실용적 음악교과 교육과정의 구안. **음악교육연구**, 44(1), 219-242.
- 최미영 (2015). 미국 국가핵심음악기준의 분석적 고찰, **음악교육공학**, 23, 79-98.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2015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 검토를 위한 공개 토론회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15-26.
- Lee Hsien Loong (1997.05.17). *The Launch of National Education*, TCS TV Theatre.
- Ministry of Education (2008). *2008 Syllabus General Music Programme (Primary/Secondary)*. Singapore: Curriculum Planning & Development Division.
- Ministry of Education (2015). *2015 Syllabus General Music Programme (Primary/Secondary)*. Singapore: Student Development Curriculum Division.

Ministry of Education (2015). *Bring Out The best In Every Child: education in singapore*. Singapore: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2014). *Primary School Education: Preparing Your Child for Tommorrow*. Singapore: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2014). *Secondary School Education: Shaping the Next Phase of Your Child's Learning Journey*. Singapore: Ministry of Education.

싱가포르 교육부 <http://www.moe.gov.sg/>

ABSTRACT

An Analysis of Revised 2015 Music Curriculum(GMP) in Singapore

Eun-Ju Kim

A national curriculum could be said to reflect the basic ideas and values a country's education advocates. Recently, each country attempts to incorporate how to develop various "competencies" for students living in a diversifying society and world into its national curriculum. Singapore included changing social requirements in its national curriculum, when revising the 2008 General Music Program Syllabus into the 2015 Syllabus General Music Programme. The revised music curriculum revolves around grade bands on the basi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classes, proposes student achievement levels expected at the close of grade bands in a few "Learning Objectives", and tries to develop the national capabilities called "21st Century Competencies". Like this, Singapore is similar to Korea in recent trends. Therefore, the present study compares the 2015 General Music Program Syllabus with former curricula in Singapore, and thus draws out suggestions for national music curriculum in Korea.

Key words: Singapore music curriculum, syllabus general music programme,
21st century competency

투고일: 2015년 5월 31일, 심사(수정): 7월 17일(7월 20일), 게재확정일: 8월 8일